

# “과학이 일상이 되는 지역문화 만들겠다”

취임 1년 강신영 광주과학관장

내년 완공 교육속박동서 청소년 체험

‘360도 영상관’ 광주 대표 전시물로

관람객 100만명 돌파 도약 계기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도와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퇴임 후 그분들께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관장은 “과학관에 애정을 보여준 지역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거듭 말했다.

광주과학관은 올해 3월 과학관 후원을 발족하고 지난 5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호남지역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과학관 후원을 시작했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지역민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웠고 또 감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강 관장은 후원을 발족하고 부서를 개편해 ‘과학문화확산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유독 공들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해양시대는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 시대 영국을 보세요.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구, 그들의 음식과 복장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문화가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시대를 이끌었다면 한복과 한식이 세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문화가 됐을 겁니다.”

그는 앞으로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 믿는다. 과학문화 확산은 곧 인재양성으로 이어지고 추후 지역 내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과학기술발전으로도 연결된다. 그렇게 ‘과학도시 광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광주과학관이 과학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문화와 예술



의 도시를 넘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거듭나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에 참여한 지역 향토기업들도 강 관장의 이런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도움을 건네고 있다. 벌써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였고 이는 도서지역 아이들의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 등 과학문화 확산에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후원회에 참여한 지역민이 ‘내가 후원한 과학관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을까?’라며 조금 더 관심



교육속박동 조감도

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후원회의 또 다른 의미라는 강 관장의 설명이다.

강 관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곳이 전남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학생 수 역시 전남이 가장 많다”며 “도서지역 아이들이 광주과학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라·제주 등 호남을 대표하는 거점과학관으로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광주과학관의 가장 큰 숙제였다. 교육속박동 건립은 재임기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속박동은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확보는 결코 쉽지 않았다. 속박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그 과정이 힘들었던 탓에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으로 다가온다는 그는

“우주선 모형의 광주과학관에 착안해 교육속박동 외관은 우주정거장 형태로 짓게 된다”며 “대강당과 숙박시설, 교육실험실, 천체관측실 등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과학관 대표 전시물 ‘Lucerium Space Sphere’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시물은 국내에는 없는 360도 영상관이다. 일본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건설되는 국내 최초 360도 영상관으로 총 12대의 영사기가 설치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전시물은 과학관을 넘어 광주지역 대표 전시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들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Lucerium Space Sphere’ 완성은 새로운 과학기술 50년의 시작을 장식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는 “취임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여러 가지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강신영 관장은 “국립광주과학관이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고 크고 작은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준 지역민들 덕분”이라며 “과학관이 호남지역 과학문화 중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NASA, 우주서 유전자 분석 실험한다

줄기세포 배양 심장병 연구도

우주공간에서 유전자(DNA) 염기 서열 분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DNA 염기 서열 분석과 뼈 조직 유전자 변화 비교, 인간 심장 변화 실험 등을 추진한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 X는 이날 오전 ISS에 보낸 화물선 드래곤에 관련 분석을 위한 기자재 250종 이상을 실어 보냈다.

이달 초 ISS에 먼저 도착해 있는 미국인 과학자 출신 우주인 케이트 루빈스는 옥스포드나노포어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미니온’이라는 소형 DNA 분석기기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다.

극미 중력 상황에서 DNA 분석 실험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으로 성공하면 ISS

에 있는 우주인들은 이 기술로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미생물 정체를 규명, 병에 걸릴 경우 자가진단해 실시간 분석으로 그 추이를 살필 수도 있다.

NASA는 또 지구 자기부상 환경과 우주 극미 중력상태에 각각 노출된 뼈 조직을 비교, 유전자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한다.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과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골손실(骨損失) 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심장 줄기세포를 이용해 극미 중력 상태가 어떻게 심장을 변화시키는지도 연구한다. 우주 비행은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 위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능성 줄기세포인 유도다능성줄기세포(IPS cell)를 ISS에서 한 달간 배양, 세포·분자 변화를 분석한 뒤 심장병 연구와 신약개발 주요자료를 얻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 103만명 쓰는 한국 ‘포켓몬 고’ 시장

범죄 온상 될라...경찰, 위험성 분석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사례가 외국에서 속속 발생하자 경찰이 국내에서도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 분석에 나섰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이다. 국내에는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 진행이 가능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가운데 103만명가량이 ‘포켓몬 고’를 내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한국이 ‘포켓몬 고’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돼 공식 마켓을 이용하지 않은 내려받기가 증가, 게임 열풍을 악용한 각종 사이버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은 게임 설치 파일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하거나 ‘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례가 외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포켓몬 고’와 관련한 비공식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등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아이템 거래 등을 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업체 등과 ‘포켓몬 고’ 관련 악성코드 유포 동향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미래부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50년사’를 2017년 2월 발간을 목표로 편찬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 50년사’는 ‘과학기술행정 20년사’(1987), ‘과학기술 30년사’(1997), ‘과학기술 40년사’(2008) 등 10년 주기로 과학기술사를 편찬해 오던 것을 잇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의 과학기술 행정·정책 변화와 그 성과를 담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50년사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고 대중 친화적으로 편찬하겠다는 입장이다.

1편 ‘시대사’와 2편 ‘과학기술 행정사’, 3편 ‘분야별 과학기술사’ 등 총 3편으로 구성된다.

1편은 전통 과학기술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며 2편은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법·제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른다. 3편은 기초과학, 산업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사와 성과 등을 담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50년사를 전자책(e-book)과 소책자로도 제작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100세 노인 유전 정보 삽니다”

英 바이오회사, 伊 장수마을 주민 대상 3억원에 매입

영국 바이오회사가 세계 주요 장수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장수 비밀을 풀기 위해 사르데냐 주민들의 유전 정보를 매입했다.

영국 티치아나 생명과학은 19일 사르데냐의 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 ‘사르데냐’로부터 사르데냐섬 올리야스트라에 거주하는 주민 1만3000여명의 유전정보를 25만6000 유로(약 3억2000만원)에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창립자 가브리엘레 체로네는

“사르데냐는 100세인들이 특이하게 많은 세계 3대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사르데냐에 자회사를 설립해 구입한 유전정보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치아나 생명과학은 현재까지 이 지역 주민들의 장수 비결에 관한 연구는 식단, 운동, 주민들간 관계 등 생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주민들의 타액, 혈액 등 유전정보를 분석해 수명과 관련한 유전·과학적 근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평택 토지 매매

★ 삼성전자 120평 ★  
LG 3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5분 (승복시장)  
토지 184평  
오피스텔 65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15억 발생

▶ 매가 12억

★ 개발 부지 ★

◆ 평택 신장동  
초역세권 승탄역 2분  
토지 359평  
오피스텔 207세대 신축가능  
개발시 순수익 37억 발생

▶ 매가 30억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고덕 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 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  
▶ 매가 1억 4천 760만

③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고덕 신도시 5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 8천 235만

【(주)대신건설 시행개발 전문】      010-6670-9800      010-7384-7800

##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6층 - 23평  
▶ 투룸 형, 코너자리  
▶ 리모원비, 풀옵션, 코너자리  
보 500만 월 45만

★ 매가 - 8천500만

062-511-7800

010-6832-9700